

## 여성의 생식건강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 1995년 이후 연구에 대한 고찰\*

이 영 란<sup>1)</sup> · 주 민 선<sup>2)</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이란 생식기계통과 그 기능 및 변화과정에서 쇠약함이 없는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생식건강은 개인 뿐 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와 국가의 사회경제발전의 기반이며 평생건강의 핵심요소이다. 유엔(United Nations: UN)은 2000년에 세계의 빈곤 퇴치와 개발을 위해 채택한 새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발표하였고 MDGs 8개 중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의 고양’, ‘유아사망률의 감소’와 ‘모성보건 증진’은 생식건강분야에 해당한다. 세계보건기구는 MDGs의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생식건강사업에 전통적 모자보건사업인 임신부 산전 및 산후건강관리와 영유아 건강관리, 질 높은 가족계획서비스, 불안정한 인공유산의 예방, 에이즈 등 성접촉 매개질환의 퇴치, 불임 예방 및 치료 등 성 건강증진을 포함시키고 있다(Kwon et al, 2014).

우리나라는 국제 및 국내의 인구·사회적 변화에 따라 생식건강 요구가 증가됨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은 미래 인적자원 확보와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Hwang, 2008).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식건강 요구의 증가를 인

식하고 2009년 1월 모자보건법을 개정 및 공포함으로써 전통적인 모자보건사업과 더불어 모자보건사업의 확대와 생식건강문제의 극복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09). 현재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모자보건사업으로써 여성인구의 생식건강, 생식권과 출산력 회복 및 난임부부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임신소모의 최소화, 출산율 안정화를 위한 가임기 여성 대상의 생식건강증진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모자보건사업의 확대 차원에서 대상별 특성에 따른 체계적 생식건강 실태조사 및 교육 등을 제공하고 최근의 인구변화에 따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정착과 가족건강을 위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식건강을 관리하고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 및 평가하고 있다(Kwon et al, 201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식건강사업이 인구 및 가족계획사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고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되어 사전 예방적 차원의 생식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Youn & Moon, 2010). 또한 유엔은 2015년 9월 193개국 정상에 참석한 가운데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POST MDGs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는 2001년 ‘Meeting of Interested parties’에서 발표한 ‘2000년의 여성건강과 관련 보고서’를 통해 여성건강을 위한 사업과 정

#### 주요어 : 생식건강, 여성노인

\* 본 연구는 2013년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과제번호: snjc2013-004)

1)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수

2)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부교수(교신저자 E-mail: secretchu@snjc.ac.kr)

투고일: 2015년 10월 4일 수정일: 2015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5일

책의 개발과 더불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이에 따라 생식건강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고 생식건강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우리나라의 가임여성의 생식건강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생식건강관리의 주요영역과 내용 및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여성생식건강을 위한 추후의 연구방향을 모색하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여성생식보건서비스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여성생식건강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여 연구방법, 연구주제와 여성 생식건강증진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 첫째, 연구대상 논문의 연구방법을 파악한다.
- 둘째, 연구대상 논문의 연구주제 영역을 파악한다.
- 셋째, 연구대상 논문의 생식건강관련 연구결과를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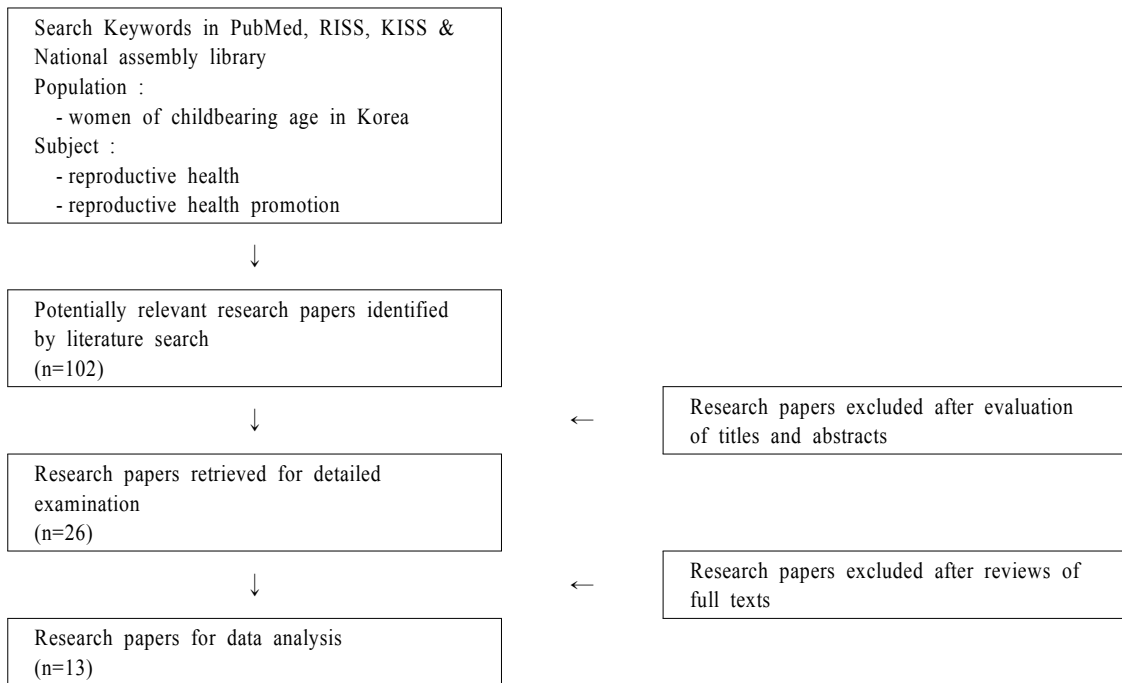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식건강에 관한 연구의 실태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이다.

####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문헌고찰 대상 논문은 한국에 거주하는 15세~44세의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생식건강 또는 생식보건을 주요 종속변수로 다룬 연구논문으로 1995년 1월~2014년 12월 사이에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것이다. 문헌검색은 PubMed, RISS(한국교육학술정보원), KISS[한국학술정보(주)]와 국회도서관의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검색에 사용된 주제는 연구대상으로는 ‘여성(women)’과 ‘가임기 여성(women of childbearing age)’, 연구주제는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 ‘생식건강증진(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생식보건(reproductive health)’이다. 문헌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된 논문은 102편이었으며 검색된 문헌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26편이 선정되었다. 두 명의 연구자가 각각 26편의 논문의 전문을 검토하였고, 연구대상이 불분명하거나,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거나 생식건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변수를 다룬 연구논문 13편을 제외하였고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다고 동의한 13편의 연구논문이 최종 연구대상이었다 (Figure 1).



<Figure 1> Process of Study Selection for Review

### 자료 검토 기준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검토를 위해 문헌검토 매트릭스(Literature review matrix)를 개발하였다. 문헌검토 매트릭스는 네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논문의 일반적 특성, 연구방법, 연구영역과 주제, 연구결과 영역이었다. 검토 단계는 일차적으로 두 명의 연구자가 각자 분석대상논문을 검토 한 후 두 명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차 검토를 하여 합의하였다. 검토 방법은 검토 영역의 하부 영역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의 기술통계를 산출하였고 하부영역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 연구 결과

####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살펴본 13편의 논문 중 1995년에서 2005년까지 발표된 논문은 4편(30.8%)이고, 2006년에서 2014년까지 발표된 논문은 9편(69.2%)이었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전체 논문 중 3편(23.1%)이었고, 연구자 개인에 의하여 진행된 연구가 11편(84.6%)이었다. 연구영역이 간호와 관련된 연구는 8편(61.5%)이었으며, IRB 승인 후 진행된 연구가 5편(38.5%)이었다(Table 1).

#### 연구 방법

13편의 대상 논문을 연구 설계에 따라 분류한 결과 조사 연구가 11편(8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헌고찰 연구와 유사실험 연구가 각각 1편(7.7%)이었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학생이 5편(38.4%)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임기 여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13 Studies (N=13)

Variables	Categories	n	%
Publication year	1995~2005	4	30.8
	2006~2014	9	69.2
Fund raising study	Yes	3	23.1
	No	10	76.9
Management of research	Public	2	15.4
	Private	11	84.6
Major field of researchers	Nursing	8	61.5
	Medicine	2	15.4
	Health science	2	15.4
	Sociology	1	7.7
IRB approved	Yes	5	38.5
	No	8	61.5

성 3편(23.1%), 결혼이주여성 2편(15.4%)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100명 이상이 11편(84.6%)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여성이 8편(61.5%)이었으며, 남성,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5편(38.5%)이었다. 유사실험 연구는 1편(7.7%)으로 중재가 포함되었다(Table 2).

#### 연구 주제

연구대상 논문의 연구주제를 생식건강 관련된 지식, 태도, 행동, 관련 요인, 건강상태 등 5개 주제로 분류하였다(Table 3).

연구대상 논문이 지식, 태도, 행동, 관련 요인, 건강상태 중에서 연구주제로 선택한 개수에 따라 살펴보면, 연구주제를 1개 다룬 경우가 7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2개의 연구주제와 3개 연구주제를 다룬 연구대상 논문은 각각 3편이었다. 연구주제별로 살펴보면, ‘생식건강 관련된 건강상태’의 연구주제는 9개의 연구대상논문에서 다루어졌으며, ‘생식건강 관련된 행동’

<Table 2> Research Methodology of 13 Studies

(N=13)

Variables	Categories	n	%
Research design	Survey research	11	84.6
	Literature review	1	7.7
	Quasi-experimental study	1	7.7
Characteristic of sample	High school students	1	7.7
	University students	5	38.4
	Marriage immigrant women	2	15.4
	Women of childbearing age	3	23.1
	Etc.	2	15.4
Sample size	~ < 100	1	7.7
	100 = or <	11	84.6
	Etc	1	7.7
Sex	Female	8	61.5
	Male and female	5	38.5
Intervention	Yes	1	7.7
	No	12	92.3

<Table 3> Research Topics of 13 Studies

Year	Author	Design	Reproductive health												
			Reference	Target		Knowledge	Attitude	Behavior	Factors	Health status	Topics				
				Group	Sex M F										
1997	Park, S. H.	Literature review													Induced abortion
2002	Elun, K., & Kwon, T.	Survey research													Induced abortion
2004	Kim, J., & Han, S. H.	Survey research	Married working woman												Reproductive health status Reproductive health problem
2004	Cho, M. O., & Kim, J. I.	Survey research	High school students												Sexual consciousness Reproductive health knowledge Sexual experience Women's reproductive health
2007	Baek, G. J.	Survey research	Army nurse officer												
2007	Hwang, N. M.	Survey research	Married women												Reproductive health indicators
2008	Ahn, et al	Survey research	University students												Behavior for Reproductive health Reproductive health history Sexual behavior Reproductive health status
2010	Kim, D.-H., Park, H.-S., & Bae, K. E.	Survey research	Married immigrant women												
2010	Youn, Y.-O., & Moon, I.-O.	Survey research	Vietnamese female immigrants												Associated factors on reproductive health Recognition of reproductive health problems Characteristic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Reproductive health history Reproductive health knowledge Behavior for reproductive health
2010	Kim, Y.-H., & Son, H.-M.	Survey research	Female University student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behavior Health risk behaviors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Sexual experiences Sexual behavior
2010	Shin, K. R., Park, H. J., & Hong, C. M.	Quasi-experimental study	University students												
2010	Shin, K. R., Park, H. J., Bae, K. E., & Cha, C.	Survey research	University students												
2013	Kim, H., & Hong, Y. S.	Survey research	University students												

이 5개 논문에서 주제로 다루어졌고, ‘태도’, ‘관련요인’이 각각 4개 논문에서, ‘지식’이 3개 논문에서 주제로 다루어졌다.

연구주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생식건강 관련된 지식’에서는 생식건강지식, 성지식을 확인하고 있으며, ‘태도’에서는 성의식, 생식건강관련 특성을 살펴보았다. ‘생식건강 관련된 행동’에서는 성관련 경험, 성행위 실태, 성경험 특성, 성행동 양상을 확인하였고, ‘관련 요인’에서는 생식 건강행위, 생식보건행위를 살펴보았다. ‘생식건강상태’에서는 인공임신중절, 생식건강상태, 생식기건강문제, 생식건강력을 확인하였다.

### 생식건강 관련 연구결과

분류된 생식건강 관련된 지식, 태도, 행동, 관련 요인, 건강상태의 5개 연구주제별 연구대상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 ● 생식건강 관련된 지식

생식건강지식수준은 고교재학 청소년의 경우 중간수준 정도로 남녀학생 차이가 없었으며(Cho & Kim, 2004), 대학생은 중간수준 이상으로 임신, 피임에 대한 점수는 높았으나, 성병에 대한 점수는 다소 낮았다(Shin, Park, & Hong, 2010).

#### ● 생식건강 관련된 태도

성의식 수준은 고교재학 청소년의 경우 중간수준 이상이었으며, 여학생의 성의식 수준 점수가 남학생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Cho & Kim, 2004). 생식건강관련 특성에서 대학생의 성태도를 살펴보았고, 점수는 중간수준 이상이었으며 여대생의 40.2%가 성에 대하여 개방적이었다(Kim & Son, 2010).

#### ● 생식건강 관련된 행동

생식건강 관련 행동 중 성관련 경험은 고교생의 경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유의하게 적었고(Cho & Kim, 2004), 성행위 실태에서 대학생은 30% 내외에서 직접적인 성행동 경험이 있었고, 70% 이상이 간접적인 성행동을 경험하였다

<Table 4> Research Findings of 13 Studies

Reproductive health	Results
Knowledge	Knowledge of teenagers in high schools is about intermediate level; there is no difference in genders. While knowledge of college students on sex was above intermediate level, knowledge on sexual diseases was somewhat low.
Attitude	Sexual opinion of teenagers in high schools was above intermediate level; female students had significantly higher level than male students. 40.2% of female college students had liberal attitude toward sex. Sexual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was above intermediate level.
Behavior	Female teenagers in high schools had less sex-related experiences than male students. Around 30% of college students experienced direct sexual behavior; over 70% experienced indirect sexual behavior. Female college students tended to have less sexual partners than male college students. Around 50% of college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sexual relations practice birth control. The most used method was condoms. Around 10% of college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sexual relations have experienced pregnancy or gotten the partner pregnant.
Factors	Female college students showed lower rate of smoking, drinking, excessive weight loss, and fulfilling regular workout than male college students. Rate of fulfilling regular meal is similar for both genders. Drinking rate of female college students was over 70%.
Health status	60.2% of married working women have experienced discomfort during menses; 40.6% have health issues for reproductive organs. 88.5% of female nurse officers have menstrual pain; 74.7% have experienced premenstrual syndrome. 11.8% of married persons have experienced artificial abortion. 7.5% of married women have visited medical institutions for infertility issue. 62.2% of married fertile women who decided to end childbirth use temporary birth control. 21.6%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have been treated for genital infection; 22.9% have experienced miscarriage, and 8.5% have experienced postnatal complications. About 50% of married women have experienced artificial termination of pregnancy at least once. The reason for artificial termination of pregnancy is unwanted pregnancy. Female college students have lower rate of infection related to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than male college students. Rate of experiencing lesion near reproductive organs are similar for both genders.

(Shin, Park, Bae, & Cha, 2010). 대학교 재학 중인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적은 성파트너 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Shin, Park, Bae, & Cha, 2010).

성경험 특성에서 피임방법을 확인하였고, 피임실천 행동은 대학생 성교경험자 중 50%내외에서 피임을 실천하고 있었고, 피임방법으로 콘돔 사용이 가장 많았다(Ahn, et al., 2008). 출산종결 유배우 가임여성의 피임 방법 중 62.2%가 콘돔, 자궁내 장치, 월경주기법과 같은 일시적 피임방법을 사용하였다(Hwang, 2007).

성행동 양상에서 살펴본 임신경험은 대학생 성교경험자 중 10%내외에서 임신경험이 있었다(Kim & Hong, 2013; Shin, et al., 2010).

#### ● 생식건강 관련 요인

생식건강행위 또는 생식보건행위를 살펴본 연구에서 대학교 재학 중인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흡연율, 음주율, 과다체중감소 경험, 규칙적 운동 실천율이 낮고, 규칙적인 식사 실천율은 유사하였다(Ahn, et al., 2008). 한편 여대생의 음주율은 70%이상으로 나타났다(Kim & Son, 2010).

#### ● 생식건강 관련된 건강상태

생식건강상태는 기혼 취업 여성의 60.2%가 월경 시 불편감을 경험하고(Kim & Han, 2004), 간호장교 여성의 88.5%가 생리통 있으며, 74.7%가 월경 전 증상을 경험하였다(Baek, 2007). 불임문제로 유배우 여성의 7.5%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다(Hwang, 2007). 인공유산은 기혼자의 11.8%가 경험하였고(Baek, 2007), 유배우 여성의 약 50%가 최소 1회 이상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였으며(Park, 1997), 인공임신중절의 이유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었다(Elun & Kwon, 2002; Park, 1997). 생식기 건강문제를 40.6%의 기혼여성이 갖고 있었고(Kim & Han, 2004), 결혼이주여성 중 21.6%가 생식기 감염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22.9%가 유산경험이 있고, 8.5%가 산욕기 합병증을 경험하였고(Kim, Park, & Bae, 2010), 생식건강력에서는 대학교 재학 중인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성전파성질균 감염률은 낮고, 생식기주위 병변 경험률은 유사하였다(Ahn, et al., 2008).

## 논 의

본 연구는 1994년 WHO에 의해 생식건강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내려진 이후, 20년간의 여성의 생식건강 관련 연구를 고찰하였다.

여성의 생식건강 관련 연구의 고찰 결과 시행된 연구의 대부분이 조사연구로 생식건강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는데 초점

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여성 성행동은 적극적이며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경향으로(Gruneit, Richters, Crawford, Song, & Kippax, 2005), 이러한 여성 성행동의 변화는 다양한 생식건강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여성 생식건강 관련 현황 조사 연구 이외에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생식건강은 여성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여성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해 실제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고찰 대상 연구에서 대상자는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이 가장 많았다. 이는 성인기 초기는 성적 접촉 등 성 건강의 신체적 측면인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빈번해지는 시기(Finer & Henshaw, 2006) 건강교육과 간호중재가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생식건강이 생식기계통과 그 기능 및 변화과정에서 쇠약함이 없는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이므로 성인기 초기 이외에도 생애주기별 대상자 선정과 대상자의 생식건강요구에 대한 조사 및 중재와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고찰 대상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식건강관련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Jeong & Shim, 2014; Yang, Chee, An, Park, & Jung, 2014). 결혼이주여성은 생식기 감염, 유산, 산욕기 합병증 등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는데(Kim, et al., 2010), 이는 언어장벽으로 인하여 임신, 출산과정에서 모성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Chung, 2010) 때문이다. 이러한 산전 엄마의 스트레스는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Foss, Chantal, & Hendrickson, 2004).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생식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개발 연구가 필요하며,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을 고려한 다양한 간호중재가 요구된다.

연구대상 논문의 연구주제는 생식건강 관련된 지식, 태도, 행동, 관련 요인, 건강상태의 5개 주제 중 ‘생식건강 관련된 건강상태’가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 행동, 태도, 지식 순으로 많았다. 건강상태는 인구집단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사정의 요소일 뿐 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와 행동의 결과이므로(Lee, Jaegal, Moon, & Lee, 2014) 추후 생식건강관련 연구의 설계와 진행 시 지식, 태도, 행동과 연계된 생식건강상태를 고려해야겠다. 또한 건강의 결정요인이 생활습관, 환경, 유전적 소인과 보건의료체제임(Kwon, et al., 2014)을 고려 할 때 연구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생식건강은 생식기 계통과 그 기능 및 변화과정에서 질병이나 쇠약함이 없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로(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연구대상 논문에서 다룬 주제는 지식, 태도, 행동, 관련 요인, 건강상태 중에서 1

개를 선택하여 진행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이는 추후 통합적 관점에서 생식건강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연구대상 논문의 연구결과를 고찰한 바에 따르면 생식건강 지식수준은 대학생의 경우 생식건강 지식수준이 중간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대학생 중 30% 내외에서 직접적인 성행동 경험이 있었고, 70% 이상이 간접적인 성행동을 경험하며, 성교경험자 중 50% 내외에서 피임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생식건강 관련 정보를 대부분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의 산발적 자료와 음성적 경로를 통해 습득하고 있고(Choi & Ha, 2004), 성행동이 적극적이며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성병감염 및 원치 않는 임신 등의 증가가 있다(Finer & Henshaw, 2006)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대학생이 생식건강 관련 지식을 갖추었어도, 이를 실천하는 데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식의 질도 적절한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성인기 초기 대상자들은 성적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피임과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기를 바라고, 성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Von Sadosvsky, Kovar, Brown, & Armbruster, 2006). 따라서 이를 반영한 생식건강의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되는 성인기 초기 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며, 국가적 차원의 정책 지원이 요구되는 바이다.

연구 결과를 고찰한 바, 기혼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이 높고, 생식기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빈도도 높았다. 여성의 생식건강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 건강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Kim, Park, & Bang, 2003; Park & Choi, 2014).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생식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위해요인에 노출되는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 흡연, 체중 조절, 만성질환 등 다양한 관련요인들이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생식건강에 대한 간호중재 제공 이외에도 생식건강과 관련된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여성건강 전반의 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간호중재 마련 및 제도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바이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94년 이후 20년간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생식건강 관련 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여성생식건강을 위한 추후의 연구방향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 연구 논문은 13편으로 연구방법, 연구주제, 연구내용 등을 고찰하였으며, 연구대상 논문의 주제를 생식건강 관련된 지식, 태도, 행동, 관련 요인, 건강상태의 5개 주제로 분류하였다

고찰한 분석대상 연구는 조사연구가 많았으며 연구의 대상자는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이 시

기에 대상자들은 성행위 및 음주, 흡연 등 다양한 생식건강행위가 빈번하였고, 관련 지식을 갖추었어도 이를 실천하는 데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성인기 초기 여성의 생식건강은 추후 자녀 생산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성인기 초기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며, 국가적 차원의 정책 지원이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기혼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이 높고, 생식기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빈도도 높았다. 특히 결혼 이후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생식건강 관련 간호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중재 전략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여성생식건강 관련 국내 연구만을 고찰하여 남성생식건강 및 국외 현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추후 국외 현황을 비교하고 이를 국내 여성건강서비스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고찰이 요구되는 바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WHO에 의해 생식건강의 구체적 정의가 내려진 이후 최초로 국내의 생식건강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로 의의가 있겠다.

## References

- Ahn, S., Park, I., Han, J. S., Kim, T. I., Kwak, M. S., & Chung, H. S. (2008). Health behaviors, reproductive health history, and sexu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4*(3), 205-212.
- Back, G. J. (2007). Relationship between Work stress and Women's Reproductive Health of Korea Army Nurse Officers. *Korea Army Nurse Research, 25*(2), 156-195.
- Cho, M. O., & Kim, J. I. (2004). Relationship among sexual consciousness, reproductive health knowledge and sexual experience in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0*(1), 59-65.
- Choi, M. S., & Ha, N. S. (2004).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0*(4), 318-330.
- Chung, H.-I. C. (2010). Child rearing experiences of foreign wives married to Korean husbands. *Asian Nursing Research, 4*(2), 75-89. doi:10.1016/S1976-1317(10)60008-4
- Elun, K., & Kwon, T. (2002). Current Situation and Determinants of Induced Abortion in Korea.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25*(1), 5-32.
- Finer, L. B., & Henshaw, S. K. (2006). Disparities in rates of unintended pregnancy in the United States, 1994 and 2001.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38*(2), 90-96.
- Foss, G. F., Chantal, A. W., & Hendrickson, S. (2004). Maternal depression and anxiety and Infant development: A comparison of foreign-born and native-born mothers. *Public Health Nursing, 21*(3), 237-246. doi: 10.1111/j.0737-1209.

- 2004.21306.x
- Grunseit, A., Richters, J., Crawford, J., Song, A., & Kippax, S. (2005). Stability and change in sexual practices among first-year Australian university students (1990-1999).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4*(5), 557-568. doi:10.1007/s10508-005-6281-x
- Hwang, N. M. (2007). A Study on the Reproductive Health Determinants of Fertility among Married Women in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 27*(2), 122-141.
- Jeong, J. Y., & Shim, M. S. (2014). Immigrant Women's Health Status, Health Behaviors and Health Care Utilization.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8*(2), 200-210. <http://dx.doi.org/10.5932/JKPHN.2014.28.2.200>
- Kim, D.-H., Park, H.-S., & Bae, K. E. (2010). Obstetrical & gynecological health status and body composi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Pusan. *Journal of Life Science, 20*(6), 894-901.
- Kim, H., & Hong, Y. S. (2013). Attitude to reproductive health, value of marriage and children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14*(1), 13-24.
- Kim, J., & Han, S. H. (2004). Health status, reproductive health problems, and the degree of prenatal management in married working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0*(3), 226-234.
- Kim, Y. S., Park, J. W., & Bang, K. S. (2003). Analysis on the effects of community based health education program for pregnant women.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7*(2), 192-202.
- Kim, Y.-H., & Son, H.-M. (2010). Affecting Factors on Reproductive Health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4), 1935-1950.
- Kwon, Y. S., Lee, M. S., Oh, J. J., Lee, Y. R., Lee, I. S., & Back, H. J. et al. (2014). *Community health Nursing*, Seoul; Shin-Kwang Pub. Com.
- Lee, Y. R., Jaegal, J., Moon, W. H., & Lee, S. Y. (2014). *Health education*, Paju; Soomoom sa.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09). *Mother and Child Health Law*.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Guide of family health services*.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Guide of women and child health services*.
- Park, M. N., & Choi, S. Y. (2014). Development of reproductive health program and identification of effect for married women immigra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4*(3), 248-258. <http://dx.doi.org/10.4040/jkan.2014.44.3.248>
- Park, S. H. (1997). An Overview on the Induced Abortion and Reproductive Health in Women.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3*(1), 66-78.
- Shin, K. R., Park, H. J., & Hong, C. M. (2010).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about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from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2*(4), 448-456.
- Shin, K. R., Park, H. J., Bae, K. E., & Cha, C. (2010). Sexual Behavior, Health Risk Behaviors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and Sexual Experience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2*(6), 624-633.
- Von Sadovszky, V., Kovar, C. K., Brown, C., & Armbruster, M. (2006). The need for sexual health information: perceptions and desires of young adults. *MCN: The American Journal of Maternal/Child Nursing, 31*(6), 373-380.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Family and community health : Annual progress report on achievements in the year 2000*.
- Yang, S. J., Chee, Y. K., An, J., Park, M. H., & Jung, S. I. (2014). Health Literacy and Its Associated Factors in Korean-Chinese and Other Asian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8*(2), 211-227. <http://dx.doi.org/10.5932/JKPHN.2014.28.2.211>
- Youn, Y.-O., & Moon, I.-O. (2010). Associated factors on reproductive health of vietnamese female immigrants: Application of PRECEDE model.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7*(4), 61-72.



# Trends in reproductive health-related research on women in Korea: A systematic review of published studies since 1995\*

Lee, Young-Ran<sup>1)</sup> · Chu, Min Sun<sup>2)</sup>

1) Professor,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Seoul, Republic of Korea

2) Associate Professor,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Seoul, Republic of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search methods, topics and trend in reproductive health on women in Korea. **Method:** We reviewed 102 studies from the electronic database of KISS, RISS,, NDSL, and PubMed, and finally selected 13 studies based on relevant criteria. **Result:** With regard to research methods, the majority of studies used survey research. As for the research themes, reproductive health status was most common. For study results, knowledge status of pregnancy and contraception were higher in university students. High school female students' level of sexual awareness was higher than that of male students. Around 30% of college students experienced direct sexual behavior. Ten percent of college students who had sexual experience had an unplanned pregnancy. About half of married women had experienced artificial termination of pregnancy at least onc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a basis for the improvement of women's reproductive health.

**Key words :** Reproductive health, Women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from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snjc2013-004)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u, Min Sun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287-89, Hongje-dong, Sudaemun-Gu, Seoul, Korea

Tel: 82-2-2287-1737 Fax: 82-2-395-8018 E-mail: secretchu@snjc.ac.kr